

노인의 음식물 섭취와 주관적 행복감: 포커스그룹 면담

강경희¹, 김광환^{2*}

¹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²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An Integrative Study on The Subjective Happiness by Eating Foods in The Elderly: Focus Group Interview

Kyung-hee Kang¹, Kwang-Hwan Kim^{2*}

¹Dept. of Dental Hygiene, Konyang University, ²Dep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치아상태와 음식물 섭취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포커스그룹 면담을 적용한 질적 내용분석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65세 이상 노인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5명을 한 그룹으로 하여 그룹 당 약 40분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치아상태', '구강건강관리방법', '구강 내 불편감', '음식물 섭취', '음식물 섭취와 주관적 행복감'의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핵심 주제로는 노인의 음식물섭취와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핵심주제는 첫째 '치아상태'로 틀니, 보철, 임플란트, 전진치아를 제외한 구강 내 결손치아는 1개에서 4개로 식사를 하거나 발음, 생활하는데 활용하는 치아는 24개 - 28개로 대답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 연구대상자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경우 속상하고 짜증나며, 본인이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대답하였으며 심지어 그만 살고 싶을 것 같다고도 대답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노인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가양성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eeth and eating foods in the elderly on their subjective happiness based on a focus-group interview (FGI). The study subjects were 10 people over 65 years old who visited a social welfare center in D City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One group consisted of five members and FGIs were performed for about 40 minutes per group. Based on the study results, five topics were evaluated, status of teeth, methods of dental health control, inconvenience within mouth, eating foods, and eating foods and subjective happiness. The study subjects answered that they felt distressed and annoyed if they could only see, but not eat favorite foods and that this made them feel old. One respondent even mentioned it made them want to stop liv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stomized dental health control programs by age, gender, income level, education level, and health status, and to build the specialists.

Keywords : Elderly, Teeth, Eating Food, Subjective Happiness, Interview

1. 서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인구

가 14.2%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6066807)

*Corresponding Author : Kwang-Hwan Kim(Konyang Univ.)

email: kkh@konyang.ac.kr

Received June 25, 2019

Accepted August 2, 2019

Revised July 9, 2019

Published August 31, 2019

노인인구 비율은 37.3%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1],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의 증가, 치매노인의 증가 등의 신체적 문제와 사회생활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사회적 고립, 우울 및 자살 등의 정신, 심리적 문제, 경제 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2]. 또한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료기술의 혁신적 발달은 노인의 삶의 질 유지와 향상이 중요한 사회관심사가 되고 있으며[3],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신체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전반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강건강의 측정에 있어서도 구강질환이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4-5].

노인의 구강건강은 소화와 영양섭취와 관련이 깊고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유지에 중요한 필수 요소이다[6-8], 최근 구강건강의 개념은 생물학적 씹고 삼키는 기능 수행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자기표현, 의사소통, 미용 등의 사회·정신적 차원을 포함한다. 노인의 구강건강은 삶의 질 유지에 기여하며 구강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 건강과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9-10].

우리나라 노인들은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치아정기검진 등 구강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이 매우 저조한 편이며[11], 대표적인 구강건강 문제는 치아상실이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저작불편 호소율은 70세 이상 남자 49.9%, 여자 49.5%, 65세 이상 노인의 현존치아 수는 17.5개로 보고하였다[12]. 치아가 상실되면 저작능력이 저하되어 식사와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양소 섭취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약화되어 질환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13-14]. 뿐만 아니라 치아의 상실에 따른 의치의 사용은 자신의 노화를 인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발음과 외형의 변화를 유발함으로 노년기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원만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사회적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유발하여 노년기에 수면장애, 불안, 우울감 등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15-17].

구강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에서 우울의 정도가 심하고 삶의 질이 낮으며, 노인은 음식 섭취 및 발음장애, 통증 유발 등과 같은 구강건강의 상태에 의해 건강과 행복감, 우울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 성인에서 우울증상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성별, 연령, 경제활동, 수면시간, 음주 여부, 본인인지 구강 상태, 씹기 문제, 말하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18-20]가 있으며, 우울

증이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행태(주관적 건강상태, 현재 저작불편, 치통 경험, 현재 턱관절장애 증상)와 의미 있는 연관성이 있었다는 연구가 있었다[21-22]. 또한 치아상실에 따른 교합이나 저작의 감소는 인지기능을 감소시키는 위험요인이 되며[23-24], Avlund 등[25]은 인지기능이 낮을수록 잔존치아 수가 적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 치아상태와 음식물 섭취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의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0명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65세 이상의 노인 남녀, 정신질환 등 병력이 없고 면담에 응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2019년 5월 13일 수행되었다. 연구 진행 전 D시의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를 만나 연구와 관련하여 기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사회복지사를 통해 본 연구의 조사에 응해줄 수 있는 대상자를 편의 추출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연구대상자는 5명을 한 그룹으로 하여 총 2그룹, 10명을 조사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그룹 당 1회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및 방법을 설명을 하고 구두 및 서면동의를 받았다. 인터뷰 내용은 익명성 및 비밀유지가 됨을 알리고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고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여자가 60.0%로 남자 40.0%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70세 이하가 60.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76세 이상이 10.0%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최종학력은 중졸이 40.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대졸이 10.0%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종교는 기독교(개신교)가 50.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카톨릭이 10.0%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결혼 상태로는 기혼이 50.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미혼이 10.0%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거주 형태로는 혼자 거주와 함께 거주가 둘 다 50.0%로 나타났다. 직업은 없

음이 80.0%로 있음 20.0%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였다. 소득은 500,000~999,999원이 50.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499,999원 이하가 20.0%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ategory	N	(%)
Gender		
Male	4	(40.0)
Female	6	(60.0)
Age		
Below 70	6	(60.0)
71~75	3	(30.0)
Over 76	1	(10.0)
Highest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2	(20.0)
Middle School graduation	4	(40.0)
High school graduation	3	(30.0)
Above university graduation	1	(10.0)
Religion		
Christianity	5	(50.0)
Catholics	1	(10.0)
Buddhism	4	(40.0)
Marital status		
Married	5	(50.0)
Single	1	(10.0)
Bereavement	4	(40.0)
living arrangement		
Live alone	5	(50.0)
Not live alone	5	(50.0)
Job		
Yes	2	(20.0)
No	8	(80.0)
Income		
Below ₩499,999	2	(20.0)
₩500,000 ~ ₩999,999	5	(50.0)
Over ₩1,000,000	3	(30.0)
Total	10	(100.0)

연구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흡연은 연구대상자 10명 모두가 안한다고 응답하였다. 음주는 안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60.0%로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40.0%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하루 평균 운동 시간은 1.40시간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40시간으로 나타났다.

2.2 질문개발

노인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사용할 질문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참고하여 1차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1차로 구성된 질문은 관련연구를 수행한 간호학과 교수 1인, 치위생학과 교수 1인, 병원경영학과 교수 1인에게 타당도를 검토받고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시된 질문은 '현재 틀니, 보철, 임플란트, 건전치아를 제외한 구강내에 결손 치아가 있는지요', '구강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요', '현재 구강 내에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밥, 인절미, 배추김치, 땅콩, 갈비, 마른오징어 순으로 갈수록 딱딱해지는 음식입니다. 음식들 중에서 예전에 비해서 씹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음식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오', '음식을 제대로 잘 못 드시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느꼈던 기분을 말씀해주세요'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자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중 관련 추가질문을 수행하였다.

Table 2.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s

Category	N	(%)
smoking		
No		-
Yes	10	(100.0)
Drinking		
No	6	(60.0)
Yes	4	(40.0)
Total	10	(100.0)
Average exercise time per day [Unit: hour]	1.40	±0.97
Average sleep time per day [Unit: hour]	6.40	±1.78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녹음된 면담내용을 반복해서 들었다. 인터뷰 진행 중에 작성한 현장 노트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사한 내용을 수차례 읽으면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공동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기술하였다.

2.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시작 전 K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KYU-2019-233-02).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면담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연구는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며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 참여를 거부하여도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면담내용의 녹취과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았으며 본 연구의 참여 중도탈락 연구대상자의 녹음내용은 즉시 제거되고 연구 분석과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치아상태

본 연구결과 첫 주제는 '치아상태'로 연구대상자들은 틀니, 보철, 임플란트, 건전치아를 제외한 구강 내 결손치아에 대하여 제 3대구치를 제외하면 1개에서 4개로 대답하였다. 식사를 하거나 발음, 생활하는데 활용하는 치아는 틀니, 보철, 임플란트 치아를 포함하여 24개에서 28개로 대답하였다.

“한 두 개...”

“난 네 개, 아래 위에...”

“저는 뭐 떼우고 해놓고 해서, 이쪽 두 개만 없어요.”

“틀니예요 다 틀니...”

“아홉 개는 있고 나머지는 부분틀니...”

“앞니 틀니고요. 어금니 위에 있는 이가 사랑니인가요? 사랑니가 없어요 좌측에...”

“전 임플란트 하나 했어요.”

3.2 구강관리방법

본 연구결과 두 번째 주제는 '구강건강관리방법'으로 연구대상자들은 치약 또는 고운소금을 이용하여 식사 후와 잠자기 전 하루 3 - 4회 잇솔질을 한다고 대답하였다. 구강관리용품으로는 치약 또는 고운 소금 이외에 치실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있었으며 기타 다른 구강관리용품과 잇솔질 외에 다른 구강관리방법을 사용한 다고 대답한 경우는 없었다.

“세 번 네 번, 밥 먹고 나서 또 하고...”

“저는 치약밖에 안 써요. 하루 뒬. 식사 한 번 할 때 당연히 닦고...”

“저도 치약. 세 번은 닦아야지.”

“저는 하루에 서너 번 씹 소금으로만 닦아요. 치약 안 써요.”

“굵은 소금은 안 쓰죠. 지금은 뒬 죽염소금이니 무슨 소금이니 해서 가는 거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집에 서도 믹서기예다 갈아서 쓰고 그래요.”

“치실 사용하고 있어요.”

3.3 구강 내 불편감

본 연구결과 세 번째 주제는 '구강 내 불편감'으로 치아가 벌어져서 외관상의 문제, 구강건강관리방법에 대한

궁금증 등이 있었으며 불편함을 느낄 때는 치과치료를 받아 음식을 섭취에는 큰 불편감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가운데 이가 떨어져 있어서 이것 때문에 보기 싫어가 지고 문제는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없어요.”

“입 속에 세균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치질 하면 100% 제거가 되나요 세균이?”

“지금 치과에 가서 자주 치료해서 괜찮아요. 조금 불편하면 다시 하지.”

3.4 음식물 섭취

본 연구결과 네 번째 주제는 '음식물 섭취'로 연구대상자들은 딱딱한 순서대로 밥, 인절미, 배추김치, 땅콩, 갈비, 마른오징어 중에서 씹어서 삼키는 데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것에는 땅콩, 갈비, 마른오징어로 대답하였다. 음식섭취를 할 때 구강의 문제로 인한 불만족 경험에 대하여는 입안이 헐거나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에 불편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오징어 같은 건 씹기는 힘들죠.”

“땅콩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먹기는 먹어요.”

“마른오징어가 제일 불편하지.. 마른오징어. 즐겨 못 먹어요.”

“갈비는... 이가 하나도 없는 노인도 고기는 잘 먹어... 예년에 젊었을 때에 비해서는 불편하지요.”

“전에 입안이 좀 헐거나 그럴 때는 안 좋았죠. 그런데 그 외에는.. 특별한건 없는 것 같아요.”

“틀니를 하면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더 뜨거워요. 뜨거워서 입천장 같은 데가 더 뜨거워요.”

“저는 그냥 별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하고 그냥 잘 먹고 있어요.”

“피곤하면 이제 입이 헐어서...”

3.5 음식물 섭취와 주관적 행복감

본 연구결과 다섯 번째 주제는 '음식물 섭취와 주관적 행복감'으로 연구대상자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보고도 못 먹어서 속상하고 짜증나며, 본인이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이들의 승진보다 본인이 맛있게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만 살고 싶은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짜증나지요.”

“아, 이제 정말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

“그만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먹는 재미로 산다고, 어르신들이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보고도 못 먹으면 그게 얼마나 속상할지..”

“다져서라도 먹어야죠. 정말, 다져서 먹어야지.”

“아들 승진보다 내가 맛있게 먹는 것이 더 좋아요.”

“일단은 잘 먹어야 건강하거든요. 그럼 못 먹으면 우선 쳐지거든요.”

“저는 틀니를 51살부터 했어요. 의사선생님이 틀니를 하래요. 울었어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틀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다듬어서 좀 해 달라고 했어요.”

“처음 이가 상했을 때 정말 이거는 다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 손자들한테도, 양치질을 잘 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틀니를 빼서 보여줘요.”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의 치아상태와 음식물 섭취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노인들의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노인의 음식물섭취와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핵심주제는 첫째 ‘치아상태’로 틀니, 보철, 임플란트, 건전치아를 제외한 구강 내 결손치아는 1개에서 4개로 식사를 하거나 발음, 생활하는데 활용하는 치아는 24개 - 28개로 대답하였다. Käser[26]는 정상적인 영양섭취와 사회활동을 위해서 20개의 치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Choi[27]는 한국의 주식인 밥과 김치를 잘 씹어 먹으려면 잔존치아수가 12개 이상, 아주 잘 씹어 먹으려면 18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치아는 저작, 발음, 외모에 관여하며 노인에서 대표적인 구강건강 문제는 치아상실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어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구강건강관리방법’으로 연구대상자들은 치약 또는 고운 소금을 이용하여 식사 후와 잠자기 전 하루 3 - 4회 잇솔질을 사용한다고 대답하였다. 노인은 전신건강과 비교하여 구강건강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구강건강관리방법이나 구강건강관리용품에 대한 지식이

나 부족하여 구강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12]. Lee 등[28]은 교육수준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건강관리 수준이나 관련 교육의 접근성과 정보 이해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구강 내 불편감’으로 연구대상자들은 치아가 벌어져서 외관상의 문제, 구강건강관리방법에 대한 관심 등이 있었으나 불편함을 느낄 때는 치과치료를 받으며 음식을 섭취에는 큰 불편감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노인은 치과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 환자에게 7년에 1회씩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1인당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 10조에 근거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인의 치과 접근성이 예전에 비하여 용이하여졌다.

넷째, ‘음식물 섭취’로 연구대상자들은 딱딱한 순서대로 밥, 인절미, 배추김치, 땅콩, 갈비, 마른오징어 중에서 씹어서 삼키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음식물로 땅콩, 갈비, 마른오징어를 꼽았다. 또한 음식을 섭취할 할 때 구강의 문제로 인한 불만족 경험에 대하여는 입안이 헐어서 음식을 먹는 것이 불편했던 경험과,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에 불편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음식의 저작과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Kim과 Lee는[29] 단단한 식품들보다는 무른 음식이나 중등도의 음식 저작이 구강건강관련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으며, McGrath 등[30]은 가철성 치과 보철물이 없는 치아상실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다섯째, ‘음식물 섭취와 주관적 행복감’으로 연구대상자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보고도 못 먹어서 속상하고 짜증나며, 본인이 나이가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아들의 승진보다 본인이 맛있게 먹는 것이 더 좋으며,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면 그만 살고 싶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노인이 겪고 있는 건강문제에서 중에서 구강건강문제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65세 이상 질병소분류별 외래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가 10위로 보고되었으며[31], Park과 Park은[32] 음식물을 잘 저작할수록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식생활과 밀접한 구강은 소화기관 가운데 첫 번째로 치아가 상실되면 음식을 섭취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

을 겪게 되며 섭취하는 음식이 제한되어 건강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한다[33-35].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문제로 대인관계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구강건강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부차원에서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과 함께 대상노인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가양성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치아상태와 음식물 섭취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연구의의가 있으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한 일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폭넓은 연구대상을 통한 검증을 통해 결과를 보완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the Interior, December 2017 Korean registered population, Ministry of the Interior, 2017, p.1-9
- [2] H. S. Kim, "Effect of Pain, Nutritional Risk, Loneliness, Perceived Health Statu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7, pp.207-218, 2017.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7.207>
- [3] B. H. Lee, "A Convergence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ntal Health Determinants on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actice Behavior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2, pp.49-56, 2019.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9.10.2.049>
- [4] K. J. Ryu, *The relevance between level of oral health and oral health-related life quality among the elderly*. Ph.D dissertation, Graduated School of Chungnam University, 2008.
- [5] M. W. Shin, Y. O. Lee, Y. C. Cho,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Physical and Mental Function, and Oral Health Impact Profiles on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People in Long-term Care Center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7, No.4, pp.500-511,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500>
- [6] H. E. Shin, I. C. Chang, K. B. Song, Y. H. Choi, "Association between masticatory ability,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cognitive function in the elderly population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42, No.4, pp.159-166, 2018.
DOI: <http://dx.doi.org/10.11149/jkaoh.2018.42.4.159>
- [7] O. J. Ha, H. K. Choi, E. J. Oh, "Factors predicting on happiness related to aging among older adult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197-208,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10.197>
- [8] S. Y. Kim, I. S. Kim, "A Fusion Survey on the Investigation of Correlation between Systemic Diseases and Oral Health", *J.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7, No.5, pp.67-73, 2017.
DOI: <http://dx.doi.org/10.22156/CS4SMB.2017.7.5.067>
- [9] M. J. Schank, M. A. Lough, "Maintaining health and independence of elderly women", *J Gerontol Nurs*, Vol.15, No.0, pp.8-11, 1997.
DOI: <https://www.ncbi.nlm.nih.gov/pubmed/2732427>
- [10] A. Sheiham, R. Watt, "The common risk factor approach: a rational basis for promoting oral health",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Vol.28, No.0, pp.399-406, 2000.
DOI: <http://dx.doi.org/10.1034/j.1600-0528.2000.028006392.x>
- [11] G. U. Kim, J. H. Kim, "A study on the knowledge and awareness of care workers on the geriatric oral health",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6, No.6, pp.9-15, 2015.
DOI: <http://dx.doi.org/10.15207/JKCS.2015.6.6.009>
-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I-3) 2015,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 [13] I. K. Hur, T. Y. Lee, J. K. Dong, S. H. Hong, "The effects of dental prostheses to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J Korean Acad Prosthodont*, Vol.48, No.0, pp.101-110, 2010.
DOI: <http://dx.doi.org/10.4047/jkap.2010.48.2.101>
- [14] D. C. Lee, H. L. Lee, I. Suh, D. K. Kim, "Factors affecting on the compliance of the health screening program: a study of the insured on a district medical insurance association", *Korean J Fam Med*, Vol.18, No.0, pp.739-751, 1997.
DOI: <https://www.kjfm.or.kr/journal/view.php?number=1392>
- [15] C. C. Horwath, "Chewing difficulty and dietary intake in the elderly", *J Nutr Elder*, Vol.9, No.0, pp.17-24, 1989.
DOI: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36264>
- [16] V. Dormenval, P. Mojon, E. Budtz-Jørgensen,

- "Associations between self-assessed masticatory ability, nutritional status, prosthetic status and salivary flow rate in hospitalized elder", *Oral Dis*, Vol.5, No.0, pp.32-38, 1999.
DOI: <http://dx.doi.org/10.1111/j.1601-0825.1999.tb00061.x>
- [17] G. Heydecke, L. A. Tedesco, C. Kowalski, M. R. Inglehart, "Complete dentures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 do coping styles matter?",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Vol.32, No.0, pp.297-306, 2004.
DOI: <https://www.ncbi.nlm.nih.gov/pubmed/15239781>
- [18] K. E. Lee, Y. H. Yom, S. S. Kim, J. H. Han, "Gender differences in oral health literacy related factors among elderly people",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25, No.1, pp.54-64, 2014.
DOI: <http://dx.doi.org/10.12799/jkachn.2014.25.1.54>
- [19] J. H. Han, Y. H. Yom, "Effects of eating habit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health behaviors on oral health related-quality of life in elderly persons", *J Korean Acad Fundam Nurs*, Vol.19, No.2, pp.179-189,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2.179>
- [20] S. I. Shin, Y. H. Kim, "A meta-analysis on related variables of elder's quality of life", *Korean J Couns*, Vol.14, No.6, pp.3673-3690, 2013
DOI: <http://dx.doi.org/10.15703/kjc.14.6.201312.3673>
- [21] Y. H. Chung, Y. H. Cho, "Health behaviors,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young-old and the old-old in Korea", *Korean Public Health Res*, Vol.40, No.1, pp.55-64,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10.197>
- [22] J. S. Kim, "The value in quality of life and recognition and preferences for advance directives by the elderly's age", *J Korean Gerontol Soc*, Vol.32, No.1, pp.1-23, 2012.
DOI: <http://kjss.kstudy.com.libproxy.konyang.ac.kr/thesis/thesis-view.asp?key=3095252>
- [23] M. Gatz, J. A. Mortimer, L. Fratiglioni, B. Johansson, S. Berg, C. A. Reynolds, et. al, "Potentially modifiable risk factors for dementia in identical twins", *Alzheimers Dement*, Vol.2, No.0, pp.110-117, 2006.
DOI: <http://dx.doi.org/10.1016/j.jalz.2006.01.002>
- [24] P. S. Stein, R. J. Kryscio, M. Desrosiers, S. J. Donegan, M. B. Gibbs, "Tooth loss, apolipoprotein E, and decline in delayed word recall", *J Dent Res*, Vol.89, No.0, pp.473-477, 2010.
DOI: <http://dx.doi.org/10.1177/0022034509357881>
- [25] K. Avlund, P. Holm-pedersen, D. E. Morse, M. Viitanen, B. Winblad, "Tooth loss and caries prevalence in very old Swedish people: the relationship to cognitive function and functional ability", *Gerodontology*, Vol.21, No.0, pp.17-26, 2004.
DOI: <http://dx.doi.org/10.1046/i.1741-2358.2003.00003.x>
- [26] A. Käser, "Shortened dental arches and oral function", *J Oral Rehabil*, Vol.8, No.5, pp.457-462, 1981.
DOI: <http://dx.doi.org/10.1111/j.1365-2842.1981.tb00519.x>
- [27] Y. L. Choi, E. Y. Yoon, "Eating problems and nutritional status of elderly patients long-term care hospitals according to Whether they consume foodservice meals or other meals", *Korean Assoc Human Ecology*, Vol.26, No.2, pp.145-156, 2017.
DOI: <http://dx.doi.org/10.5934/kjhe.2017.26.2.145>
- [28] M. S. Lee, S. J. Shin, S. H. Jung, "The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HRQoL) and socio-economic position in the elderly in rural area of Gangwon province", *Korean Soc Dent Hyg*, Vol.11, No.5, pp.707-715, 2011.
DOI: G704-SER000010586.2011.11.5.008
- [29] Y. H. Kim, J. H. Lee, "A study on the OHIP-14 of some local women impact on the EQ-5D for review", *J Korean Acad Dent Health*, Vol.39, No.0, pp.180-185, 2015.
DOI: <http://dx.doi.org/10.11149/jkaoh.2014.38.1.31>
- [30] C. McGrath, R. Bedi, M. S. Gilthorpe,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views of the public in the United Kingdom", *Community Dent Health*, Vol.17, No.1, pp.3-7, 2000.
DOI: <https://www.ncbi.nlm.nih.gov/pubmed/11039623>
- [31]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6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nternet],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8
- [32] J. U. Back, M. H. Park, "Ability for chewing a social activity and connection with the life function of a senior citizen", *J Kor Aca Tech*, Vol.29, No.0, pp.87-103, 2007.
DOI: http://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73434_9462613.page
- [33] H. H. Park, I. J. Song, "A Convergenc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hronic Neck Pai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6, pp.299-310, 2018.
DOI: <http://dx.doi.org/10.15207/JKCS.2018.9.6.299>
- [34] H. S. Kim, "Effect of Pain, Nutritional Risk, Loneliness, Perceived Health Statu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7, pp.207-218, 2017.
DOI: <http://dx.doi.org/10.15207/JKCS.2017.8.7.207>
- [35] H. Y. Song, M. H. Park, "Comparable Influencing Factors for Quality of Health-Life in Osteoarthritis Patients i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6, pp.311-323, 2017.
DOI: <http://dx.doi.org/10.15207/JKCS.2017.8.6.311>

강 경 희(Kyung-hee Kang)

[정회원]



- 2010년 2월 : 경북대학교 미생물학과 (이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치위생, 구강보건, 노인, 삶의 질, 치매

김 광 환(Kwang-Hwan Kim)

[종신회원]



- 2001년 2월 :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무기록정보, 보건관리, 웰다잉, 노인, 삶의 질, 치매